



고령화로 인한 장례문화 변화

김유미 연구원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매장식 장례문화가 발전하였으며, 인구의 고령화로 사망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묘지면적도 빠르게 증가하여 국토 이용의 효율화를 저해하고 있음. 그러나 점차 매장 중심에서 화장 중심으로 장례문화가 변화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화장률이 82.7%로 나타남. 향후 화장에 대한 높은 선호가 반영되어 화장률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화장 후 유골 안치장소로는 자연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정부는 화장 문화가 보편화됨에 따라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장사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으나 국민적 정서와 시설 부족 등으로 인해 자연장의 높은 선호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은 저조한 편임

■ 우리나라는 유교 및 풍수지리 사상의 영향으로 매장식 장례문화가 발전하였으며, 인구의 고령화로 사망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묘지면적도 빠르게 증가하여 국토 이용의 효율화를 저해하고 있음

- 2015년 사망자 수는 28만 1천 명(65세 이상 21만 1천 명)으로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2000년에 비해 전체 사망자 수는 14%, 65세 이상 사망자 수는 41% 증가함¹⁾
 - 10년 후인 2025년에는 사망자 수가 40만 3천 명으로 2015년에 비해 1.4배, 20년 후인 2035년에는 1.8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매장위주의 장묘관행으로 묘지면적은 매년 증가하여 현재 국토면적(100,338km²)의 1%, 주거면적(2,646km²)의 38.7%를 차지하고 있음²⁾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묘지로 인한 경제·공익적 손실은 개인묘지(30m²)당 36,780원으로 연간 1조 4,63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³⁾

■ 과거와 달리 장묘에 대한 인식변화로 장례방법이 매장 중심에서 화장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2005

1)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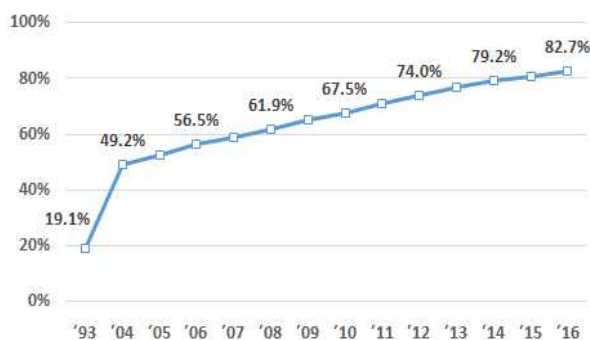
2) 국토교통부, 지적통계

3) 김정래(2010), 「묘지의 가치에 관한 연구: 순 공익·경제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년 화장률이 매장률을 넘어선 이래로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에는 82.7%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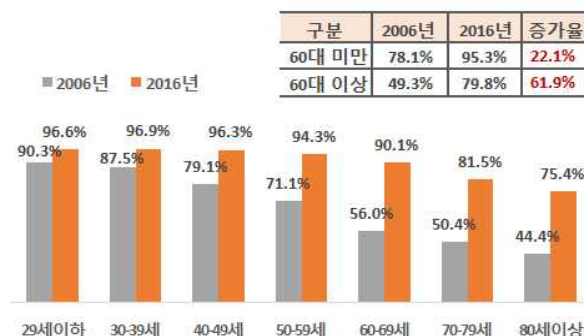
- 2016년 화장률은 82.7%로 전년보다 1.9%p 증가하였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87.8%로 비수도권보다 8.6%p 높게 나타남(〈그림 1〉 참조)
- 화장률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편이나 그 증가 속도는 높은 연령에서 빠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85.4%로 여성보다 5.9%p 높게 나타남(〈그림 2〉 참조)

〈그림 1〉 화장률 추이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7. 12. 7), “2016년 화장률 82.7%, 전년보다 1.9%p 증가”

〈그림 2〉 연령별 화장률 변화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7. 12. 7), “2016년 화장률 82.7%, 전년보다 1.9%p 증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07. 9. 20), “화장중심의 장사문화 시대 도래”를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

■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본인의 향후 장례방법으로 매장보다 화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화장률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화장 후에는 봉안시설⁴⁾보다 자연장⁵⁾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⁶⁾⁷⁾

- 저출산·고령화, 핵가족화 등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로 인해 본인의 향후 장례방법으로 매장(12.6%)보다 화장(85.2%)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장례방법으로 화장을 선택한 이유로는 관리하기 쉬워서가 41.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깨끗하고 위생적이어서(27.4%), 절차가 간편해서(15.9%) 순으로 나타남
- 화장한 후 희망하는 유골 안치장소로는 봉안시설(39.8%)보다 자연장(45.4%)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이용률은 봉안시설이 73.5%로 높게 나타남
 - 이 같은 차이는 장례방법 선택이 가족·친지들의 선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본인의 선호가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하는 시설을 말하며, 이에는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 건축물인 봉안당,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이 있음

5)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나무, 화초, 잔디 주변에 묻는 친환경 장례법으로 우리나라는 2008년 법으로 자연장을 허용하였음

6)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

7) 2015년 장례문화진흥원과 한국리서치가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100% 반영되기 어려운 것으로 이해됨

- 그러나 자연장에 대한 선호가 실제 이용으로 이어질 경우 자연장 이용률은 2015년 16%에서 2024년에는 45%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정부는 화장 문화가 보편화됨에 따라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장사문화 정착을 위해 2008년부터 자연장을 허용하고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민적 정서와 시설 부족 등으로 인해 자연장의 높은 선호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은 저조한 편임

- 웰빙(Well-being)을 넘어 웰다잉(Well-dying)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자연장은 자연의 일부였던 인간이 자연으로 회귀하는 친환경적인 장례방법으로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 생활문화공간과의 접근성, 관리 편의성 등의 장점을 갖고 있는 선진국형 장례방법으로 평가받고 있음
- 자연장의 선호도는 높은 편이나, 봉안시설과 달리 고인의 유골이 자연으로 빠르게 회귀하여 육안으로 볼 수 없다는 점과 국공립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해 실제 이용률은 저조한 편임
 - 자연장지 중 선호도가 높은 수목장의 경우 국공립시설이 3곳(경기 양평, 경기 의왕, 인천)⁸⁾에 불과하며, 사설의 경우에는 불법 운영과 비싼 가격, 산지 훼손 등의 문제가 있음
- 정부는 전국 장사시설과 장례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친환경적인 장사방법인 자연장 활성화를 위해 장지 조성 관련 인·허가 수준과 조성면적 및 설치지역 기준을 완화하고 시설 인프라를 확충해나가고 있음⁹⁾
 - 산림조합중앙회에 따르면 2021년까지 수목장림 30곳, 2022~2026년에는 30곳, 2027~2030년에는 40곳을 조성하여 2030년까지 수목장림 100곳 조성을 추진할 계획임¹⁰⁾ [kiri](#)

8) 산림청 보도자료(2017. 3. 16), “산림청, 수목장림 활성화 위한 열린 토론회”

9)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0. 5. 26), “규제완화로 자연장(自然葬) 활성화 촉진”

10) 연합뉴스(2017. 10. 3), “산림조합 2030년까지 수목장림 100개 조성한다”